

# 디지털로 만나는 미술 속 자연과 인간의 교감

ACC, 융복합콘텐츠 '몰입미감' 12일부터 문화창조원 전시1관 원화작품을 미디어아트로 구현 이중섭작품 등 회화 32점 모티브



이중섭작 '아이들'

이중섭(1916~1956)은 부인과 아이들을 일본에 보내고 많이 그리워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웠던 작가의 삶은 언제 들어도 가슴한 권을 먹먹하게 한다.

그의 그림이 감동을 주는 것은 진실성과 단순성이다. 시대가 불러온 극한의 상황을 에두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화법으로 표현해 이색적인 조형성을 구현했다.

이중섭의 그림을 포함해 회화 작품 32점을 디지털로 시각화한 미디어아트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베트남국립미술관, 의재문화재단, 가나문화재단의 소장 작품을 다양한 해석과 함께 디지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원화 작품을 매체에술로 구현한 전시를 문화창조원 복합전시1관에서 연다.

'몰입미감-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서정적 교감이 특징인 회화를 모티브로 펼쳐진다. 전시 기간은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ACC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디지털콘텐츠를 매개로 원화 작품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대형 스크린 속의 콘텐츠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은 포스트 뮤지엄의 가능성과 향후 미래까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시는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설렘에 새기다'. 일명 몰입미감 공간으로 들어가는 전이공간으로, 앞서 언급한 이중섭의 '아이들'이 안내를 하듯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힌다.

제1부 '몰입, 공간에 새기다'는 초대형 몰입공간을 상징했다. 김규진 '목죽', 이용우 '화조 8곡 병', 서진달 '마을', 김종찬 '연', 황술조 '창축의 정물' 등 근대 수묵화를 비롯해 풍경화, 정물화 14점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했다. 수묵화에 담

긴 '기운생동'한 예술정신과 자연과 인간의 교감은 그림이 주는 깊고 담백한 묘미를 느끼게 한다.

심미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제2부 '체험, 손끝에 새기다'에서는 융복합 인터랙션 기술을 모티브로 구현된 작품을 볼 수 있다. 김중현 '정물(罌)', 이재창 '드로잉', 채용신의 '전우 초상화'가 관객을 기다린다. 사용자가 참여해 알 수 있는 총체적 경험과 융복합 기술을 적용, 작품의 의미를 쉽고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제3부 '감동, 가슴에 새기다'는 원화의 실재와 디지털의 가상이 변주하는 공간을 초점화 한다. 원작의 원형성과 매체에술의 창의성, 심미성과 아울러 아시아 근대미술의 동시대성과 한국적 정서를 비교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로 변화된 김강열 '물방울'과 허달재 '매화' 등의 작품을 만난다.

'여정, 기억에 새기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에필로그는 참여형 체험전시공간이다. 관람객의 얼굴을 근대 작품 속 초상화 인물로 합성해주는 코너. 관람객들은 과거의 작가가 내 얼굴을 그려주는 듯한 경험을 매개로 작품의 다양한 원형과 변주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몰입미감'에서는 아시아가 지닌 독특한 '서정미'를 변화된 디지털로 만날 수 있다"며 "작품에 담긴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누구나 매체에술을 통해 즐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융복합콘텐츠 '몰입미감'이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복합전시1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감동 가슴에 새기다' 장면.

(ACC 제공)

## 사진과 더해진 짧은 시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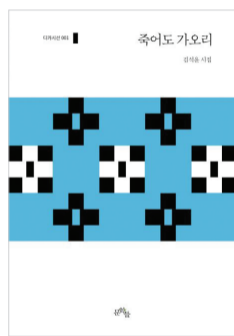
완도 출신 김석윤 시인 '죽어도 가오리' 펴내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특히 카메라 기능의 확대로 사진을 찍고 짧은 시를 올리는 이른바 '디카시'가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다. 크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상을 포착해 시를 창작하는 디카시는 문학 영역의 확대 또는 시적 감수성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있다.

최근 완도 출신 김석윤 시인이 펴낸 시집 '죽어도 가오리'는 영상과 짧은 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집이다.

시인은 "시집이라 묶고 보니 작고 예리고 성기고 쓸쓸하다"면서도 "이처럼 소소한 것을 시(詩)라 부를 수 있다"며 "이러한 압축적으로 시집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컬러 사진 64점과 시 64편이 조응하며 보는 맛



과 읽는 맛을 더해준다. 특히 사진 속 장면을 경구로 풀어주는 작품은 강렬하면서도 생생하다.

많은 고무장갑이 철제대문에 널린 '수화'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보자.

"오늘은 목욕히/ 손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가 그것으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의 문장은 상황을 간명하게 그려낸다.

담배락에 커다란 눈을 부릅뜬 부엉이가 그려진 모습을 담은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배열돼 있다. 시 제목은 '병아리 때 소풍 가는 날'이다.

"인술 교사님들! 학생들 통제 단단히 하세요./ / 아이고, 교장 선생님! 재물 지금 아무도 못 말려요."

시집 뒤편에는 디카시 5편에 대한 여러 시인들의 감상평이 수록돼 있다.

이기영 시인은 "작은 온기들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런지. 세상은 몇 사람에게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같이 굴러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기영 시인은 지난 2009년 '1세기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타르초 깎는 남자'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미디어아트센터장에 이경호 작가 선임

광주시는 제2대 광주미디어아트센터장에 이경호(56·사진) 작가를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미디어아트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5급)를 도입했다.

이 작가는 프랑스 다종 국립미술학교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하는 등 1987년부터 2000년까지 프랑스에서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조형미술 작업을 해왔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활동하고 2010년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전에도 참여하는 등 국내에서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2년 간이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센터는 지역 미디어아트 분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 광주 남구 구동에 문을 열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미디어아트센터는 영상을 제작하고 실험·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한 장·제작 공간, 전시공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교류공간인 텔레포트관 등으로 구성됐다.

## 트로스 앙상블 무대... 트럼본 매력에 흠뻑 1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트럼본의 진수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린다. 월요콘서트 무대로 펼쳐지는 트로스 앙상블(사진)의 '21th century Trombone Virtuoso'가 그것.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이 진행하는 이번 15일(오후 7시 30분) 월요콘서트에는 트로스 앙상블이 무대에 오른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이며 이날 공연은 '大樹(taiju)'을 비롯해 'Trombone quartet N.1', '1st trombone quartet' 등 21세기에 작곡된 트롬본 앙상블 곡을 들려준다.

연주에는 트롬본 사육일(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단원), 이상현(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홍성혁(프로젝트 더 울림 리더)과 베이스 트롬본 고재현(부산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외래교수)이 출연하며 공연 중간중간 트롬본에 대한 정보와 역사 등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결성된 트로스 앙상블(대표 사육일)은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학파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솔로 리사이틀, 트롬본 앙상블, 오케스트라, 캄보랜드 등 다양한 구성으로 트롬본의 매력

을 전달하고 있다. 서 대표는 네덜란드에서 학업 및 연주활동을 마쳤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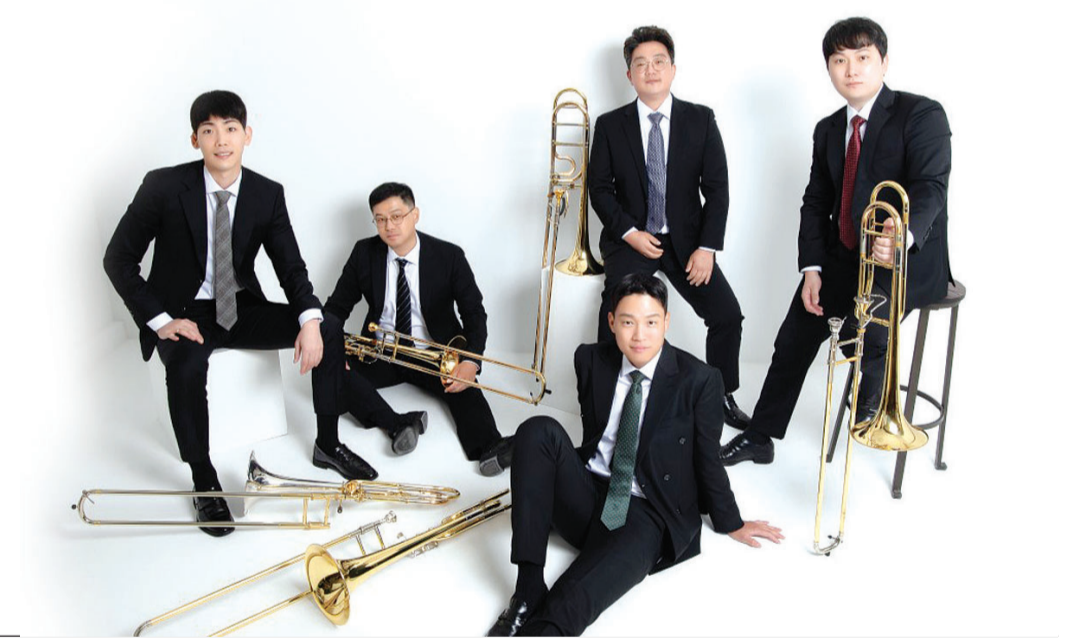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월요콘서트는 다양한 구성으로 트롬본의 맛과 이색적인 매력을 전달하고 있는 트로스 앙상블 무대로 꾸며진다"며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이색적인 콘서트를 즐기

며 남은 일주일을 활기차게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연은 오는 22일 '하노버 앙상블' '슈만의 집으로 초대'.

공연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5000원. 관람은 사전 전화 예약 및 현장 예매로 운영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산강이 품은 누정' 우명석 사진전, 1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누정을 찾아가갈 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곳에 있던 선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방문객을 만났을까, 라는 심경을 가만히 헤아리게 됩니다. 또 누정을 방문하는 이는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며 어떤 상념에 젖었는지 상상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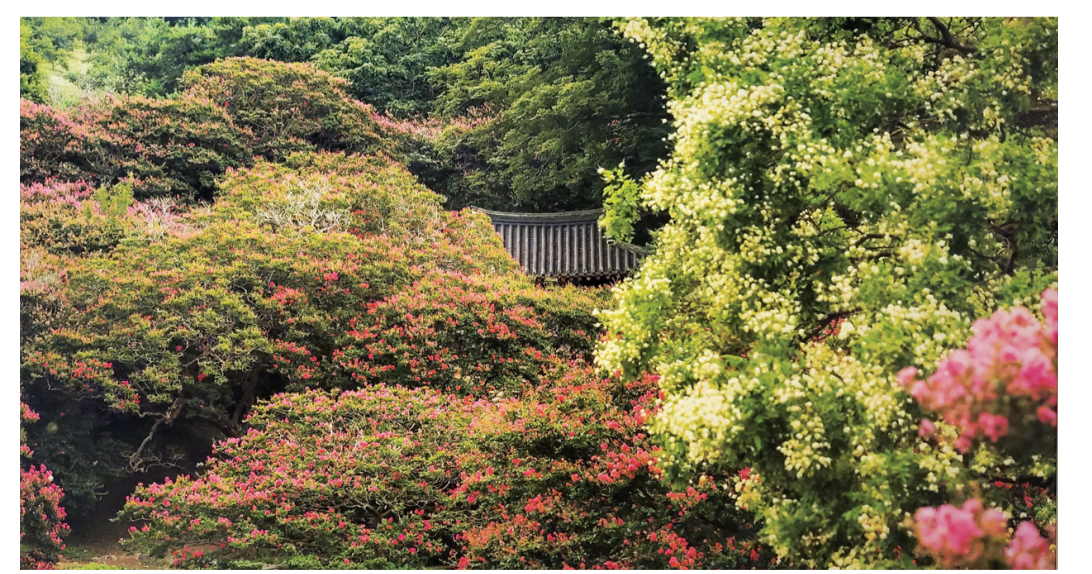
'영산강이 품은 누정'을 주제로 17일까지 사진전을 갖고 있는 우명석 씨의 말이다. 그는 사업을 하는 틈틈이 영산강에 매료돼 오랫동안 풍경을 영글어 담아왔다.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에 들어서면 영산강의 사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전문적인 사진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바라본 영산강의 다양한 풍경은 잔잔한 아우라를 발한다.

새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풍영정'을 비롯해 성하의 계절에 담아낸 녹음이 우거진 '서하당'의 풍광, 노란 개나리가 허공을 물들인 '소쇄원' 봄의 모습까지 작품은 계절의 색감을 오롯이 드러낸다.

누정들을 보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와 영산강을 벗 삼아 시문을 짓고 후대를 양성했던 선비들의 담백한 서정과 세상의 중심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 삶을 관조하는 이의 심사를 읽을 수 있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무시로 만나는



'명옥헌'

세태에서 여윌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선 누정은 오늘 우리의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묻는 듯하다. 혹은 누정에 들어와서 밖을 바라보는 이가 '나'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잠시 빠지기도 한다.

한편 우명석 씨는 "무엇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

까" 라는 질문에 "누정이 서 있는 위치와 사시사철 달라지는 주변 경관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들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담소를 나누고 풍류를 즐겼을까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